2018학년도 제3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회 의 록

위 원 장	학 교 장

일 시	2018. 10. 23.(화) 18:00	장 소	교장실
참석위원			
안 건	제1안 2019학년도 검정교과서 선정(안) 제2안 2018학년도 쌍치초등학교회계 제1차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 예산(안)		

회 의 진 행 내 용

○ **간 사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학년도 제3회 쌍치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먼저 교장선생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학교장 :**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학교 발전을 위해서 관심 갖고 있어 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많지 않고 2건이므로 잘 살펴봐 주시고 많은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간 사 :**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개회선언 하겠습니다. 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학년도 제3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 다음은 안건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안 2019학년도 검정교과서 선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 그럼 먼저 제1안 제1안 2019학년도 검정교과서 선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사 :** 선생님께서 담당이신데 오늘 출장인 관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다...)

○ **위원장 :** 일단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살펴보시고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 교과서를 전시해 놓았습니다. 보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보건실에 가서 교과서(10종 30권) 전시품을 관람하다)

회 의 진 행 내 용	
○ 위원 :	선생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다 보셨다는 거지요?
○ 교사 :	네 한문 교과에 대해서 15종~10종에 달하는 검정교과서가 배부되어서 이중에서 3권을 선택하게 되어서 운영위원회에 3권 1,2,3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과서는
○ 위원 :	요즘 교과서가 이렇게 잘 나와요. 질이
○ 교사 :	예체능 교과서 외의 국어, 수학, 과학은 국정교과서로 일괄 배부되고요 이것만 선정하게 되었어요.
○ 위원 :	5,6학년으로 갈수록 글밥 수가 많아져요
○ 교사 :	3,4학년으로 올라갈 때 확 틀려져요. 글자수가, 활자 크기가 확 달라져. 3학년에서 글자크기가 적어지고 4학년 되면 더 적어지고 지금 1,2학년은 글자수가 거의 없고 글자도 크고
○ 위원 :	영어수업할 때 speaking 하면은 영어CD를 틀어놓고 같이 수업을 하나요?
○ 교사 :	그럼요. 여기에 CD가 들어있고 학생들은 사이트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지금 3학년들도 그렇게 하고 있죠?
○ 위원 :	네. 한번 봤어요.
○ 위원 :	지금 초등학교는 개인 컴퓨터에 앉아서 하고 있진 않죠?
○ 교사 :	네 그러진 않아요.
○ 위원 :	그럼 아이들이 영어공부를 하면 집에서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 교사 :	사이트 있어요.
○ 위원 :	저학년 같은 경우도?
○ 교사 :	지금 영어는 3학년부터
○ 위원 :	그러니까 3학년도?
○ 교사 :	네. 그 전에 CD가
○ 위원 :	뭔가 자료를 하나도 안 가져 오니 애가 학교에서 영어를 뭘 배우는지 솔직히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으니까 단어 하나를 알게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뭔 책을 배우는지도 모르겠구

회 의 진 행 내 용	
○ 위원 :	어디 보니까 play표시 되어 있는 거 보면은 CD가 있을 것 같은데
○ 위원 :	그럼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3학년에 처음 시작했잖아요. 교과랑 그런 게 사실 궁금해요. 그런데 우리 학부형들이 솔직히 뭘,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집에서 코칭을 할 수가 없고 따로 별도로 책을 구매해서 하거든요 그런 거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책을 안 가져오니까
○ 교사 :	요즘 애들이 책을 안 가지고 다니니까
○ 위원 :	그러니까 답답해 진도를 어디까지 나갔는지 뭘 배웠는지 아무것도 알수가 없어
○ 위원 :	요즘은 주로 안가지고 다니게 하더라구요 저희때는 그날그날꺼 다 들고 책 매고 다니고 그랬는데
○ 교사 :	어깨가 무겁다고 해가지고 책을 학교에 놓고 다니고 하도록 얘기가 되었었거든요
○ 위원 :	솔직히 가방 메 보면은 없어. 빈 가방이야.
○ 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체크를 하냐고
○ 교사 :	일단 저희가 수업을 할때는 여기에 교습자료 학습자료가 있어서 classroom english로 발음도 하고 원어민 발음으로도 듣고 또한 이제 저희 3,4,5,6학년부터는 원어민강사가 일주일에 한번 와요 영어수업이 5,6학년이 4시간 그리고 3,4학년은 수업이 2시간인가 아마 될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이트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수업을 하시고 아마 사이트로 알려주실건데
○ 위원 :	한번도 들은 적이 없고 예를 들어서 2시간을 하든 4시간을 하든 중요한게 아니라 얘가 학교에서 배웠으면 솔직히 복습을 해야 잖아요. 영어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으니까 한번이라도 짚고 넘어가면 기억을 할텐데 그런 게 참 답답하더라구요
○ 교사 :	그건 제가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전화드리겠습니다.
○ 위원 :	1,2,3순위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 위원 :	과목은 다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의 성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냐가 틀린거니까

회 의 진 행 내 용	
○ 교사 :	저희가 순위를 정할때에는 아이들과 수업분량,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게 흥미롭게 갈수 있는가 쉽게 전달될수 있는가 그리고 또 평가면에서 적정한가 그림이나 이런 글자에 있어서 그림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부적절한가 아니면 더 좋은 거 그리고 학년수준에 맞나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잘할수 있는 그런 면에서 먼저 선생님들이 봤습니다.
○ 위원 :	어차피 지금 안의 내용은 단계별로 대동소이하잖아요.?
○ 교사 :	네 그렇죠
○ 위원 :	다만 그것이 그림하고 글자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해가 빨리 오냐 그걸 위주로 하는 거지요
○ 교사 :	네 그렇죠 교사가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어느 책자가 효과적일까? 그걸 첫 번째로 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나 글자. 이런것들은 그 다음순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봤습니다.
○ 위원장 :	잘 보고 오셨습니까? 잘 보고 오셨으면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	교과서 선정은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 학교장 :	선생님들께서 3번 모이셔서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림, 삽화라든가 종이 재질까지도 다 살펴보고 직접 본인들이 아이들 지도할 교재니까 오죽 알아서 선정하겠습니까?
○ 위원 :	출판사도 많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제1안은 그대로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들 :	네
○ 위원장 :	제1안 검정교과서 선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	이어서 제2안 2018학년도 쌍치초등학교회계 제1차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	(제안설명을 하다...)
○ 위원장 :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자세히 보시구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 유인물이 발송되었고 위원님들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 의 진 행 내 용	
○ 위원 :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행정수입에 강당사용료가 150만원 되어 있잖아요. 이건 수입이잖아요. 이이 수입에 대한 지출내역이 안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 간 사 :	그 수입이 다 모여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 위원 :	그 품목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서 나가는 건가요?
○ 간 사 :	네. 배드민턴 사용료 수입 등이 다 모여서 세출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 위원 :	강당사용료 수입은 강당사용료로만 쓰이는 줄 알았습니다.
○ 간 사 :	수입이 다 합쳐져서 세출을 편성하게 됩니다. 저희가 150만원은 배드민턴 클럽 강당사용료로 매달 10만원씩 120만원, 선거 강당 사용료 10만원, 그리고 간혹 강당 대여요청시 6만원 정도 그래서 총 150만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장 :	강당사용료 수입을 강당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구요?
○ 간 사 :	네, 강당 수입을 강당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구요, 다 같이
○ 위원 :	강당사용료 수입에서 유지보수비, 전기료 이런 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구요?
○ 간 사 :	네.
○ 위원 :	시산초나 중학교 급식도 여기서 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 간 사 :	여기서 말하는 수입은 교직원 급식비입니다.
○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급식조리하시는 분도 도에서 급식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돈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건지?
○ 간 사 :	교육청에서 급여로 나옵니다. 학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 위원 :	그 돈이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 한테 급여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예들 들어서 수당같은 것이 있으면 다 떼고 내역서 식으로 해서 그돈이 쭉 나가거든요 그 돈에는 그 사람들 별도로 식대로 따로 나가요
○ 간 사 :	급여에 포함되어서. 네
○ 위원 :	그러면 일인당 5천원씩만 잡아도 일주일이면 2만5천원이예요. 그돈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또 그 돈이

회 의 진 행 내 용	
○ 학교장 :	공무원들은 월급에 급량비라고 해서 13만원 월급으로 다 나가고 선생님들은 식사비로 한끼에 3700원씩 해서 날수대로 해서 선생님들은 다 내요. 직원들은. 조리종사원들이 급식비를 내냐 안내냐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 위원 :	네 그 급식비가 도에서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어요. 월급에 포함이 되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별도로 내가 쉽게 얘기해서 먹겠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도시락을 싸와가지고 도시락을 먹는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시면은 여기서 같이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내놔야 되거든요.
○ 학교장 :	꼭 학교 급식비를 내라고 주는건 아니고, 작년부터 그것 때문에 학교마다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그 분들 급식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라 돈을 내라 할 것인가 내지 말라고 할 것인가 학교 자체적으로
○ 위원 :	네 그렇죠
○ 학교장 :	그런데 지금 거의가 처음에는 당연히 내야지 그분들이면 한 달에 얼만데 했다가 말썽이 하도 많으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은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간도 봐야 되고 조금씩 먹고 차라리 나는 안 먹어 버리겠다 하는 분도 있고 그럼 나는 도시락 싸야 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상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불화가 더 켜진 거죠 학교마다 그래가지고 안 받는 데가 더 많습니다.
○ 간 사 :	올해 본예산 회의 할 때 급식운영 심의할 때 그 부분을 넣어서 무료급식으로 심의 마쳤습니다.
○ 위원 :	그 돈은 무료급식이면 그 분들이 가져가는 걸로
○ 간 사 :	그렇게 하는 걸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 위원 :	지금 몇 분이서 일하시는 거지요?
○ 간 사 :	4분 이십니다.
○ 위원장 :	내년에 잘 하시면 되죠. 올해는 이미 끝났으니까
○ 위원 :	3천 얼마라도 해도 돈이 얼마고 일년으로 따지면 그 돈이 애들한테 하다못해 간식비라도 줄 수 있다는 거지요. 애들한테.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보면은 참 이런말 하면 안 되지만 치사하고 더럽다 이거예요 하지만 애들한테 따지고 보면은 그 단돈 천원 천원이 모이다 보면은 액수가 되기 때문에 그만큰 아이들한테 하다못해 아이스크림은 사 준다든지 뭔가 해줄수 있는 몫돈이 마련되잖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회 의 진 행 내 용	
○ 학교장 :	작년부터 학교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 간 사 :	올해는 심의를 이미 2월달에 급식운영에 관하여 심의해서
○ 학교장 :	애들 먹이는 것인데 그럴리는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맛없게 한다든지
○ 위원 :	알고 하는 것이 낫고 그분들도 그렇게 내역이 나올거 잖아요 급여명세서에 식대라든가 쭉 나올거 아니예요 거기에 대한 내역을 알면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 내용을 알면서 하는 거 하고 아예 그냥 모르고 넘어가려고 하는거 하고는
○ 간 사 :	그 분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세요 급식비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셔서 통과한 것까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 위원 :	아 무료급식으로 심의 통과했다는 것을요
○ 간 사 :	네. 심의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 위원장 :	더 이상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위원 :	그리고, 올해는 어찌 했지만은 내년에도 저희가 할지 모르지만 지금 보면은 일주일에 아이들 교육이 정규 수업 끝나고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매 월화수목 다 틀리잖아요 그거를 월요일에 할 것을 두팀 세팀 나누지 말고 한사람이 월요일이면 월요일 전체 다 끝내고 화요일이면 시간 또 안 바뀌고 세시간이 두시간이 이고 그 사람이 다 끝내고 가게
○ 학교장 :	방과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을 하나 예를 들면 40명을 데리고 한꺼번에 못 하잖아요. 그 사람이. 적어도 2반으로 나눠야 이 사람이 1,2,3학년 가르칠 때 4,5,6학년은 다른 선생님이 가르쳐야 돼요
○ 위원 :	그 대신 그 2시간 3시간을 하게 되면 애들도 그만큼 능률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시간 하고 알려주고 가기 바빠
○ 위원장 :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형수 지역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제가 다음 회의때 말씀드리려고 싶었는데, 교장선생님께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 지금 하고 있는 방과후가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말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위원들이 가서 보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근데 말씀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솔직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위원 한번 해봤지만 위탁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연 우리 위원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지

회 의 진 행 내 용
○ **학교장 :** 제가 위탁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반대가 많았는지 어땠는지 위탁을 안했거든요.
○ **위원장 :** 위탁을 안했어요. 제가 학부모지만 여기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측에서 과연 그렇게 한적도 없었고, 그런 부분. 정말 있었으면 알죠. 저는 당연히 위탁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위원을 같이 하고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걸 올해 알았습니다.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 **학교장 :** 제가 12월 초 무렵에 전 세대에 안내장 보낼게요. 학부모 의견 다 들어야 되거든요. 위탁관련 찬반의견 물어봐 가지고
○ **위원장 :** 당연하죠.
○ **학교장 :**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 **위원장 :** 당연히 저는 그런줄 알았어요.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근데 아니라는 거죠. 누구한테 들은 거 없었고.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운영위원회는 짧게 이제 시간도 되고 했으니까 1안 2안 했으니까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자 일단 제2안 2018학년도 쌍치초등학교회계 제1차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 기타 의견 있으면 부위원장님? 있으시면?
○ **위원 :** 교과서에서 말했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안건 없죠?
○ **간 사 :** 심의안건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더 이상 안건이 없으므로 2018학년도 제3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회의종료시간 18:38, 기록자 행정실장 채윤경 인)